

합리적인 행정전략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청광훈



무엇보다 제도가 합리적이어서 상수도 행정이 신뢰받는 발판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상수도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해 「2004 상수도 혁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쉼기준에서 재검토, 선진기술과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 직원 상호간의 활발한 토론회를 진행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 또는 자체 연구팀의 분석 등을 통해 2005년에 시행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책임지고 생산·공급하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장으로서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이며, 그 추진 상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국상수도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에서 금년 4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시민건강과 직결된 상수도업무를 맡게 되어 시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해 우리본부에서는 「가장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선진화된 급수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우수율 제고 사업, 공기업 경영관리의 효율화, 상수도 행정의 시민 신뢰도 제고 등 - 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지리적 조건에서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깨끗하며, 자체 상수원인 동북호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주암호를 원수(2급수)로 수돗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 올해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세계 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상수도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수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와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용연정수장 계통 송수관 및 배수지 시설공사를 2007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직접 급수방식에서 간접 급수방식으로 전환되어 안정적 급수공급과 고지대 주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수도 행정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쉼기준에서 재검토하고 선진기술과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하는 등 직원 상호간의 활발한 토론회를 통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 또는 자체 연구팀의 분석을 통하여 2005년에 시행을 목표로 「2004 상수도 혁신 프로젝트」라 명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Profile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정광훈 본부장

* 46년생

*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前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예술회관관장

* 본부에서는 특히 우수율 제고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후수도관 교체 및 상수도 블록관망 정비 등 연차별 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개선과 우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과 상수도 블록시스템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4년 이전에 시설된 수도관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PVC관 등의 관종으로 관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3년부터 3단계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체대상 1,067km 중에서 2003년까지 908k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60km의 교체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노후관의 88% 이상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급수관망은 공급 우선의 관망체계로 누수량 추적이 불가능하고 전지역이 단일관망으로 되어 있어 저지대에서는 수압이 높아 누수율이 증가하는 등 균등급수 공급이 어려우며, 급수사고 발생시 넓은 지역을 단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급수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2015년까지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2015년에는 우수율이 90%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71.5%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이 1%(2000년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동안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불신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책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본부에서는 수질관리의 최우선 시책으로 시민이 직접 마시는 『수도꼭지 중심의 수질감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꼭지 수질감사에 수질평가위원회와 주부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특히 「이동수질검사차량」을 이용하여 시민과 함께 각 가정의 수돗물을 현장에서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이 생산되고 공급되는 모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10년이 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도시에 비해 수돗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수돗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수 수질검사 법정항목 23개 항목을 61개 항목으로, 정수 수질검사 법정항목 55개 항목을 110개 항목으로 대폭 늘려 철저히 수질을 검사함으로써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뿐만 아니라, 『WHO 권장기준』에 적합하고 수질기준보다 훨씬 낮게 검출되며,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과 유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수질에 관한한 세계 어느 도시와도 경쟁할 만큼 자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부에서는 현재의 수질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연구를 이미 3년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수돗물에 대해 시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이나 언론에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는 일은 규정으로 제도화하기 이전부터 우리시가 가장 먼저 해오고 있으며, 「학교 수도교실 운영」, 「수도관련 전시회」, 「수질개선을



▲ 광주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중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 ▶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세계 물의 날(3. 22)에는 시민단체에서 지점선정, 채수, 현장조사, 검사의뢰, 조사결과 발표 등 수질검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수돗물과 약수 등 다른 먹는 물과의 비교수질검사를 함으로써 광주시 수돗물의 우수함을 이미 입증 받고 있습니다.

*** 올해 WATER KOREA는 오는 11월에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이어 내년 행사가 이곳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와 본부에서는 2005 WATER KOREA 행사 개최를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 추진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더불어 보다 성장하는 WATER KOREA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2002년 제1회 대구 전시회 때부터 수도관련 사업자와 공무원들이 WATER KOREA 행사에 참여하여 상하수도 발전에 기

여 하였으며, 지난 2003년 부산 전시회에는 기능경진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심의위원회, 협회 발전방향 T/F팀위원, 교육홍보 및 해외협력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5 WATER KOREA를 우리시에서 개최한 배경은 친환경 창조형 도시지향을 목표로 신기술·신소재 제품전시를 통한 상하수도 관리의 신뢰제고 기회를 마련하고, 물 시장 개방과 물에 대한 국제적 품질관리를 소개함으로써 시민 참여와 이해도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의 특징적 문화를 소개하는데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광주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하며,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비엔날레와 함께 광(光)산업, 문화수도, 학술, 기술정보, 문화교류를 통해 깨끗한 물의 도시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05 WATER KOREA 광주 전시회는 내년 7월 준공예정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의 최첨단 시설을 이용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규모를 확대하고자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를 위하여

코트라(KOTRA)의 해외조직망 74개국 102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3개국 30개사는 코트라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시회 참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 및 교통 지원에 있어서는 행사기간 중 숙박비가 20~30% 할인 될 수 있도록 지역내 숙박업소와 협의할 것이며,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호텔간 셔틀버스는 1일 4~5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해외바이어를 위한 전용상담실 운영, 기자재 출품업체에 대한 등록안내, 상담을 위한 통역 및 번역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전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국내·외 관련 단체를 DB화 하고 바이어와의 지속적 관계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감사 서한 발송 등 지속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행사에 대하여는 개최식에 환경부 장관을 초청하고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및 만찬 시에는 우리시가 자랑하는 시립예술단 공연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하수도 시설견학과 전시회 기간에 개최되는 디자인 비엔날레 등을 관람토록 계획하는 등 시차원에서 성공적인 2005 WATER KOREA 행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은 상수도 사업자들의 당면과제이며, 물절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와 책임은 물 값의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요금현실화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중앙정부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는 200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이 101%로 현실화를 이루었으며, 2002년부터 요금체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체계는 업종별로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요금부과에 있어서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 상가에서 1개의 계량기로 사용하는 경우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하는 규정, 업종별 누진체계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전국동일) 등이 그것입니다.

요금체계개선은 업종통합(6종→4종)과 누진체계개선(5~6단계→3~4단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옥탕2종을 폐지하였고 2005년까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누진체계를 5~6단계를 사용량 중심으로 누진요율을 적용하여 3~4단계로 낮추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단순화 또는 단일 업종으로 하고, 누진체계는 소득재분배, 수도물 절약을 유인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합리적이어야 상수도 행정이 신뢰받는 발판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부에서는 협회 발전방향 테스크포스팀, 협회의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저희 협회의 사업과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협회의 가장 큰 고객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귀 본부에서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상·하수도 사업 혁신에 꾸준한 연구 노력을 경주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고 있는 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업무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맑은 물 공급, 급수민원 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수준에 맞는 공기업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협회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공기업 경영의 소양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 본부장님은 최근에 '고향, 그리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집까지 내셨는데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한 저의 기억의 파편들을 담은 시집을 본의 아니게 세상에 선보이게 되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습작형태로 쓰기 시작했던 것인데 틈틈이 활동하던 주변 문인 동호회의 한 친구의 권유로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네요. 시를 쓰면서 많은 욕심은 없었습니다. 철이 들기도 전에 고향 해남을 떠나 도회지인 이곳 광주에서 학창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향수를 글로써 노래한 것 뿐이지요. 친구의 권유

로 감히 시집을 내긴 했지만 여

유롭지 못한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기회로 삼고

자 합니다. 더불어 근

40년 공직생활을 마

감하는 이 시점에서

그간 국가의 녹을 먹

고 지역사회에 일꾼

으로서 일했던 소감이

나 느낌을 담은 수필집도

부끄럽지만 준비 중입니다.

해서 앞으로 나와 같은 길을 걸을



▲ 정광훈 본부장의 첫시집 '고향, 그리고 사람'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들의 가슴속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